

뉴스 라운드업

-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에 나스닥 +1.57%·S&P500 +0.72% 마감, AI 수요 우려 완화되며 위험선호 개선(VIX -4.73%)
- 이란전쟁 개전 6 개월째 교착 장기화, 트럼프 '이란과 대화 없다' 경제전 쟁 집중' 발언에 WTI +1.58%
- 지역 연은 총재들 매파 발언 이어지며 미국 10 년물 금리 +2.7bp, 잭슨홀 Warsh 연설 앞두고 12 월 인상 반영확률 75%로 확대
- ECB 7 월 의사록서 추가 인상 필요성 재확인, 프랑스는 예산정치 리스크로 독-불 국채 스프레드 2024 년래 최고

엔비디아 훈풍에 위험선호는 살아났지만 이란전쟁 장기화와 Fed 매파 기조가 금리 상단을 계속 누르고 있다

어젯밤 마감한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견인했다. 반도체 대장주의 매출 전망치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인공지능(AI) 수요 둔화 우려가 완화됐고, 세일즈포스도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하며 기술주 전반에 온기를 더했다. 그 결과 나스닥은 1.57%, S&P500은 0.72% 오르며 마감했고 변동성지수(VIX)는 14.50으로 4.73% 내려 위험선호가 개선된 모습이다. 다만 같은 시간대 마감한 유럽 스톡스 600은 0.69% 내려 대서양 양안의 온도차가 뚜렷했다. 참고로 닷케이·코스피·항셍 등 아시아 지수는 전일 오후(한국시간 기준) 마감한 수치로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 값이며, 그 반응은 오늘 개장에서 확인될 사안이다.

금리 쪽은 위험선호 개선과 별개로 상단 압력이 이어졌다. 클리블랜드 연은 해맥 총재와 캔자스시티 연은 슈미드 총재가 추가 긴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시카고 연은 굴스비는 관세가 물가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스턴 연은 콜린스 총재는 최근 물가지표를 '혼재'로 평가하면서도 관세·유가발 충격이 없다면 완만한 디스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런 매파적 발언들이 쌓이며 미국 10년물 금리는 4.676%로 2.7bp, 2년물은 4.234%로 2.5bp 각각 올랐고, 금리선물 시장은 9월 동결 우세(57%) 속에서도 12월까지 누적 인상 반영확률을 75%로 끌어올렸다. 오늘 예정된 워시 연준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9월 회의 방향성에 대한 추가 단서를 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있으며, 이는 표결이 9-3으로 갈리며 내부 매파 균열이 커진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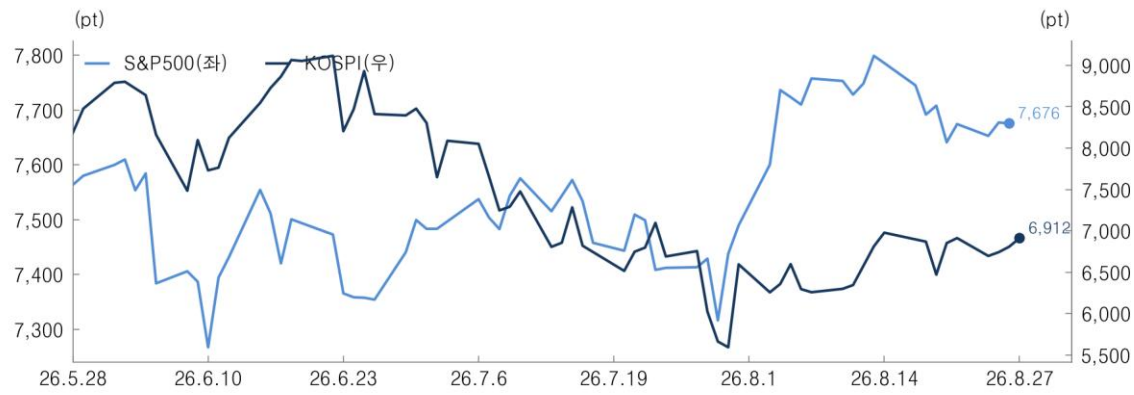
지정학적으로는 이란전쟁이 개전 6개월을 맞아 뚜렷한 승부 없이 교착 국면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하지 않겠다며 경제적 압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고, 이 여파로 WTI는 83.53달러로 1.58% 올랐다.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공개한 7월 회의 의사록에서 이란전쟁발 여파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확인되며 9월 추가 인상 기대가 힘을 얻었는데, 이는 기존의 매파적 동결(Hawkish-Neutral) 판단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작 유로존 내부에서는 프랑스가 정치권의 예산 힘겨루기 속 독일과의 국채 스프레드가 202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고 은행주가 약세를 보이는 등 재정 불안이 부각돼, 통화정책 매파 강화와 재정 리스크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엇갈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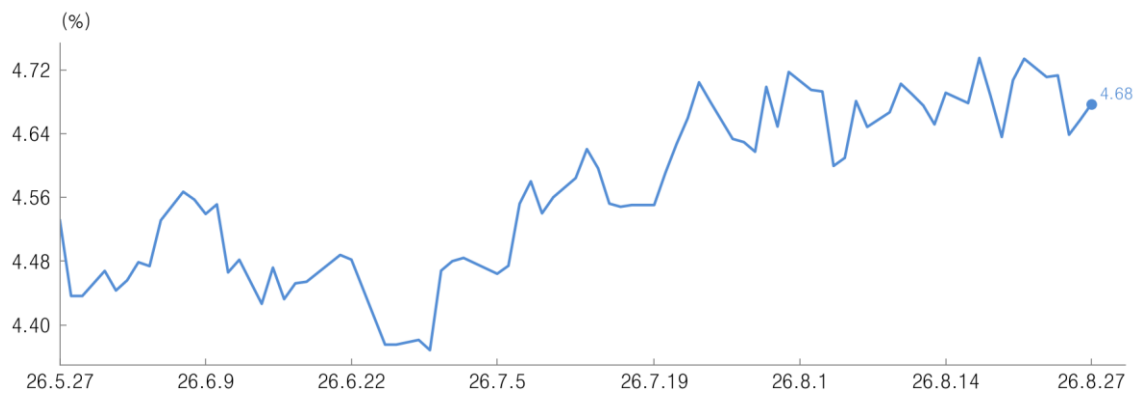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730.99	+0.72%	8/27 종가
	나스닥	26,541.34	+1.57%	8/27 종가
	STOXX 600	651.86	-0.69%	8/27 종가
	닛케이 225	66,131.76	-0.20%	8/27 종가
	CSI 300	4,630.28	+0.86%	8/27 종가
	KOSPI	6,912.37	+1.53%	8/27 종가
	항생	25,565.74	-0.34%	8/27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9.14	-	8/27 종가
	달러/엔	159.41	+0.01%	8/28 종가
	유로/달러	1.17	-0.01%	8/28 종가
	달러/원	1,380.60	-0.34%	8/27 종가
	달러/위안	6.72	-0.04%	8/27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676%	+2.7bp	8/27 종가
	미국 2 년	4.234%	+2.5bp	8/27 종가
	일본 10 년	2.892%	+0.7bp	8/27 종가
	독일 10 년	3.267%	+2.9bp	8/27 종가
	한국 10 년	4.252%	-2.0bp	8/27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67bp	-3.0bp	8/26 종가
원자재	WTI	83.53	+1.58%	8/27 종가
	금	4,588.97	-0.19%	8/27 종가
	구리	6.59	-0.15%	8/27 종가
변동성	VIX	14.50	-4.73%	8/27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5 건 HIGH	• 캐나다 2 분기 경상수지 4 년 만에 흑자 전환, 시장 예상 크게 상회 ↳ 2 분기 경상수지 +C\$88.4 억 흑자 기록(1 분기 -C\$83.1 억에서 대폭 개선), 시장 예상(-\$20 억 적자)을 크게 상회한 서프라이즈 ↳ 재화 수지 호조(+C\$122.04 억)가 주도했으나 서비스·투자소득(각각 +C\$0.26 억, +C\$4.57 억)은 미미하여 구조적 경상수지 개선보다는 경기순환적 상품수출 회복에 가까운 성격 ↳ 캐나다달러(CAD) 전일 1 주일 저점(1.3892)에서 1.3855(USD 당)로 0.2% 강세 전환, 유가 상승과 경상수지 개선이 동시 작용했으나 미국의 캐나다 상품 관세 우려가 상승 모멘텀 제약 • 이스라엘 10 월 27 일 선거 결과에 따라 셰켈 ±3% 변동 가능성 ↳ JPMorgan 분석에 따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셰켈에 ±3% 폭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음 ↳ 현재 시장의 확률 평가에서 네타냐후 총리 재임보다 야당(전 군부사령관 아이젠코트 주도) 승리 가능성에 더 높은 가중치 부여, 한편 여론조사가 역사상 리쿠드를 과소평가한 사례 다수로 선거 결과 예측 불확실성 상존 • Fed 고위 관계자들 인플레이션 경로 놓고 의견 엇갈림, Warsh 연설 임박 ↳ Warsh(Jackson Hole 연설 예정)은 '인플레이션이 문제인지 자체 가 도전 과제'라며 모호한 입장 유지하는 한편, Collins·Hammack 은 최근 지표를 '혼재적(mixed)'. '완만한 완화 경로'로 평가 ↳ Goolsbee 는 관세·지정학 긴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를 강조하면서도 '단기 최대 우려는 인플레이션 통제 불안'이라는 입장 명시, FOMC 내부 의견 수렴이 아직 불분명한 상태 ↳ Warsh 연설(현지시간 28 일 예정) 앞두고 현재 달러화·국채 수익률의 보합 상태 지속
미국 뉴스 68 건 HIGH	• 이란 전쟁 6 개월, 교착 상태로 악화 — 초기 4 주 내 종료 공약 무산 ↳ 호르무즈 해협 해운 대폭 차질, 이란 항복 의지 없음 ↳ Trump, 경제 제재 우선 전략으로 전환 — 'Operation Economic Outcast' 추진,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제재 경고 • 7 월 PCE 3.7%, Fed 목표 대비 65 개월 연속 초과 — 인상론 vs 진정론 대립 심화 ↳ 자동차 5%, 주택·유틸리티 3.5% 이상, 오락용품 두 자릿수 수준으로 가파른 상승 ↳ Cleveland Fed Hammack: 올해 말 3%, 내년 2.5% 수준 예상 — 금리인상 필요성 강조 ↳ Boston Fed Collins: 포트폴리오 관리수수료가 지표 왜곡, 세부 항목은 긍정적 신호 — 단계적 완화 전망 유지 • 오늘 Jackson Hole 연설 앞 시장 혼조 — 기술주 견조하나 금리 경로 불확실성 지속 ↳ Nvidia 실적 전망 강세(AI 수요 재확인)로 나스닥·S&P 500 상승 — Salesforce 연간 실적 상향 후 급등 ↳ 국채수익률 소폭 상승, 달러 혼조 — 시장이 9 월 인상 확률 35%, 12 월까지 75%로 평가 ↳ Fed 내 매파(Hammack, Kansas City 의 Schmid)와 완화론(Chicago 의 Goolsbee 관세 우려) 입장 엇갈림 — Warsh 기초 연설이 시장 방향성 결정할 가능성 • 미국 국방부, NATO 유럽 동맹국에 자체 방위력 강화 신호 ↳ 미국 국방부 정책 보좌관, 6 개월간 미군 유럽 배치 재검토 진행 중 ↳ 국방 지출·전략·조달·미국 정책 지지 수준 등 설문 진행 — 유럽 주도 방위 체계 구축 유도

권역	요약
	• Trump, 푸틴의 NATO 영토 비공격 확신 표현 — CIA 국장 모스크바 방문 보도 축소 ↳ Trump: '푸틴은 NATO 영토 공격하지 않을 것' ↳ CIA 국장이 러시아 고위 관료에게 경고했다는 보도 축소 언급 • Trump, 이란 전쟁 유가 상승 대응 정유소·연료 소매 회의 추진 ↳ 다음주 정유소·휘발유 소매업체 경영진과 회의 — 유가 인상 완화 방안 협의 ↳ 중간선거(11 월) 앞 유가 압박 완화를 위한 정치 대응 — 공화당 의석 확보 필수 • Trump, 소형정유소 면제(SRE) 확대 방안 검토 — 농업·바이오연료 산업 강한 반발 ↳ 현재 약 14 억 건의 면제를 18 억 건 수준으로 확대 검토 중 ↳ 농업·바이오연료 업체 반발, 아이오와 공화당 상원의원이 '대형 정유업체 특혜' 지적
유럽 뉴스 21 건 HIGH	• ECB, 9 월 추가 금리인상 신호 강화 — 7 월 유보는 임시 결정 ↳ 지난달 22-23 일 회의 의사록 공개: 정책위원들, 이란전쟁발 에너지가격 상승 진정을 위해 추가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평가 ↳ 9 월 회의에서 인상 개시 예상 → 유로존 채권수익률 상승으로 선반영 (독일 10 년물 3.25%, 15 년 고점 근처) • 프랑스, 기록적 채무와 대선 불확실성으로 시장 신뢰 이탈 ↳ CAC 40 -1.7%(1 개월 저점), STOXX 600 한 달 최악 낙폭 — 은행주 -1.7%로 주도 ↳ 프랑스-독일 채권스프레드 2024 년 이후 최고 수준 → 재정 신용도 악화 신호 점화 ↳ 국회 분할 상태로 이미 2 명의 총리가 예산안으로 사임 기록 → 내년 봄 대선 앞 재정 위기 심화 • BoE 연내 금리인상 기대 < 1 회분으로 축소 → 파운드화 주간 저점, 포지션 정리 ↳ 파운드화 \$1.3578(-0.1%), 6 개월 고점(1.3675)에서 후퇴 → Jackson Hole Fed 의장 발언 앞서 롱 포지션 청산 진행 ↳ 시장이 BoE 연내 1 회 미만(<0.25%) 인상만 반영 → 영국 국채(Gilt) 수익률도 하락 추세 지속 • 유로존 채권수익률 상승, 유가 연동 — 호르무즈 해협 재개 협상 난항 신호 ↳ 독일 10 년물 수익률 3.25%, 15 년 고점 근처(+2~3bp) → 2 년물·30 년물도 동반 상승 ↳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위한 이란-카타르 중재 협상 진행 중이나 합의 난항 신호 → 유가 상승 기조 유지 • UniCredit CEO, 독일의 약화된 방어 뚫고 Commerzbank 48% 지분 확보 — 인수전 판도 전환 ↳ 2024 년 독일 정부의 Commerzbank 지분 매각(35%)이 인수의 발판 제공 ↳ CEO, 독일 재무장관 회담 예정 → 인수전 귀주 결정 단계 돌입 ↳ 독일 정부: 내부 분열, 관심 부족으로 인수 방어력 약화 • 이탈리아, 에너지 횡재세(Windfall tax) 검토 우려 → Eni 5 일 연속 하락(-6%) ↳ Eni 주가 8 월 20 일 이후 누적 -6%, 전일 증가 약 1,000 유로 ↳ 정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분의 국내 충격 완화 목적 → 에너지 기업 부담금 전환 추진 중 • EU 4 개국, 러시아 동결자산 재활용 논의 재개 호소 — 9 월 1-2 일 회의에서 상정 ↳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외교부장관 서한 제출 ↳ 동결자산 규모: 약 2,100 억 유로(약 2 조 유로) → 작년 12 월 EU 가 동결, 우크라이나 재건 활용

권역	요약
	검토 중 ↳ 벨기에 입장 미정 → 전원 합의 필수로 진행 가능성 불투명 • 독일 Merz, EU 2028-2034 예산안의 최대 60% 증가 제안에 반발 — 지속 가능성 우려 ↳ 유럽집행위원회 제안: 약 2 조 유로 규모 (기존 대비 최대 60% 증가) ↳ Merz: 다른 순기여국 지도자들과 함께 EU 예산 지속 가능성 유지 촉구 • 유럽 경제지표 혼조 — 독일·북유럽 일부 개선, 영국은 여전히 적체 ↳ 독일 Ifo 고용지수 94.8(+1.8p), 2025 년 5 월 이후 최고 수준 (다만 여전히 일자리 삭감 진행 중) ↳ 스웨덴 GDP 성장률 전망 2.5% (기존 2.3%에서 상향), 덴마크 3.7%로 상향 (기존 2.7%) — Novo Nordisk 의 Wegovy 수출 부양 ↳ 영국 NEET (미취업 청년, 16-24 세) 981,000 명 (100 만 미만으로 개선, 다만 2013 년 이후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 FTSE 100 -0.8% 1.5 개월 최악 낙폭, 은행·에너지주 동반 약세 — 프랑스 리스크 확산 ↳ 영국 FTSE 100: 10,792.54p(-0.8%), 1.5 개월 만의 최대 낙폭 ↳ 은행주가 주요 약세 주도, 에너지주도 동반 약세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재정·선거 리스크 회피 심리 우세) ↳ FTSE 250 보합(+0.04%) — 대형주 중심의 구조적 위험 회피 시현
브라질 뉴스 12 건 HIGH	• 7 월 경상수지 약 81.1 억달러 적자, 2019 년 동월 이후 최대 ↳ 적자 규모 -81.1 억달러로 시장 예상(-66 억달러) 크게 초과, 서비스 수지 악화 (전년동기 대비 약 5 억달러 확대) ↳ 외국인직접투자(FDI) 약 74.6 억달러로 기대 약 79.2 억달러에 못 미침 • 중앙정부 7 월 1 차 수지 약 108 억 레알 흑자, 예상 소폭 상회 ↳ 실적 약 108 억 레알(약 21 억달러) 대비 예상 약 107 억 레알로 약간 초과 ↳ 법원명령 지급을 3 월에 집중 처리해 7 월 지출 급감한 캘린더 효과로 인한 일시적 수지 호전 • 계획장관, 지표 외 지출 포함시에도 2027 년 1 차 수지 흑자 달성 가능성 표명 • 석유 수출세 12% 둘러싼 법원-정부 충돌, 법적 불확실성 고조 ↳ 법원이 수출세 일시 중단 명령, 동일 시점에 정부 무역위원회(Camex)는 60 일 연장 승인으로 엇갈림 ↳ 예상 만료일 9 월 9 일 전후 석유 기업과의 법적 분쟁 예상 • 라틴아메리카 통화 약세 속 브라질 환율 압력, 연준 잭슨홀 연설 앞 신중 기조 ↳ 라틴아메리카 통화·주식지수 0.1% 약세, 연준의장 Warsh 의 잭슨홀 연설 앞 투자자 신중 ↳ 브라질 경상수지 악화가 외환 약세의 배경에 구체적 근거 제공
남미 기타 뉴스 11 건 HIGH	• 콜롬비아 신정부 2027 년 예산안 제출, 2026 년 재정적자 -7.2%로 악화 ↳ 우파 성향의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엘라 신정부, 전임 좌파 정부 예산안(575.7 조 페소/\$1,868 억) 반례 후 634.95 조 페소(\$2,060.2 억) 규모의 새 2027 년 예산안 제출 ↳ 2026 년 재정적자 전망 -7.2%로 확대되는 가운데 당해 예산에서 21.9 조 페소 추가 감액 계획 ↳ 2027 년 예산안은 10 월 20 일까지 의회 승인 필요

권역	요약
	• 아르헨티나 페소, 사상 최저인 1,520 페소/달러 기록 ↳ 전일 저녁 아르헨티나 페소(ARS) 0.33% 약세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 ↳ 분석가들, 극단적인 약세가 시장 예상 범위 내이며 경제의 구조적 고인플레이 추세를 반영한다고 평가
EM 기타 뉴스 14 건 HIGH	• 시리아, 미국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직후 Visa·Mastercard 국제 결제 네트워크 복귀 시작 ↳ Visa, Mastercard, 27 일 미국의 지정 해제 며칠 뒤 시리아에서 국제 카드 거래 첫 수행, 글로벌 결제망과 수십 년 만에 재연결 실현 ↳ 시리아 대통령 Ahmed al-Sharaa, Visa 거래 테스트에 직접 참여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 복귀의 정치적 의지 표현 ↳ 시리아 중앙은행,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재통합을 국가 재건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 지난 6 개월 이란 군사 포위, 현재 경제전·해상봉쇄로 전환하며 장기 교착국면 고착 — 분석 ↳ 2 월 말경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6 개월을 거치며 군사 공격(공습)에서 경제 포위·해상봉쇄 전략으로 변화 ↳ 이란 정부, 군사적 위협에서 생존한 이후 권력 기반 유지하면서도 시간이 자국에 유리하다는 판단 고수 ↳ 걸프 국가들, 단기 전면전보다 장기 교착(수개월~수년) 상태의 지역 안정성 훼손 우려; 경제 고통 심화에도 정권 정책 변화 유도 어려움 • 르완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50bp 인상해 8.75%로 결정 — 중동 분쟁 영향 인플레이 억제 ↳ 중앙은행 총재 Soraya Hakuziyaremye, 27 일 정책금리를 8.25%에서 8.75%로 인상 발표 ↳ 중동 분쟁 파급으로 최근 인플레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인상 목적은 인플레이 기대 정착·이차 효과 차단·2027 년 하반기 물가 목표 복귀 • 러시아 루블, 에너지 수입 수요 급증·유가 하락으로 수개월 최저 기록 — 8 월 올해 최악월 예상 ↳ 루블이 27 일 달러·위안화에 대해 2% 이상 약세해 수개월 최저치 기록; 8 월 전체가 올해 최악월이 될 전망 ↳ 약세 배경: 세금 관련 외화 수입 지지 대출 종료,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공격에 따른 연료·정제 장비 수입 수요 급증, 유가 하락 등 삼중 압력 •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영국 미사일 사용에 대응해 영국 군사목표 타격 위협 — 양국 갈등 심화 ↳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Maria Zakharova, 27 일 우크라이나가 영국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영토 내 목표를 공격한 데 대응해 영국 영토 내·외 군사목표 타격 가능성 경고 ↳ 러시아 주장: 영국이 테러 공모 단계에 '한 걸음 앞'이며 '재앙적 결과' 초래 가능; 영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 재검토 촉구 • 폴란드 MPC, 2027 년 하반기 인플레이 목표 복귀 전망 — 임금 둔화 확인, 세계 인상 불확실성 남음 ↳ 중앙은행 정책위원회(MPC) 7 월 의사록 27 일 공개; 임금 성장을 계속 둔화 중이며 물가 상승 압력 완화로 평가 ↳ 인플레이: 2027 년 하반기에 2.5% 목표 부근 복귀 예상하되, 상품 가격·재정정책·부가가치세(VAT)·연료세 인상 등으로 경로 불확실성 지속

권역	요약
	↳ 경제 성장은 적절 수준에서 진행되어 물가 상승 압력이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인도네시아 의회 재정위, Destry Damayanti 를 차기 중앙은행 총재로 인준 — 최초 여성 리더, 전체 의회 최종 승인 남음 ↳ 의회 재정위원회, 27 일 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임시 총재인 Destry Damayanti(62)를 다음 총재로 인준; 전체 의회의 최종 승인 대기 ↳ Damayanti 는 중앙은행 내부 승진자이자 선임 부총재 출신으로 조직 역량 충분하다는 평가; 임기는 5 년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역사상 최초 여성 최고 리더 탄생 예정
중국 뉴스 1 건	• 중국 당국 자산규제로 Prudential 홍콩 신규사업 감소 — 국경 간 자본유출 억제 신호 ↳ 상반기 홍콩 기반 중국 고객의 신규사업 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 베이징 당국의 국경 간 자본유출 억제 의도로 평가됨 ↳ Prudential 은 충분한 여유자본을 확보해 향후 불확실성에 대응 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
한국 뉴스 2 건	• SK 하이닉스, 인디애나 AI 칩 시설 착공식 개최 및 2029 년부터 대량생산 계획 공개 ↳ \$40 억 규모 고급 패키징 및 연구시설, 미국 정부 보조금 \$4.58 억과 대출 최대 \$5 억 확보(2024 년 12 월) ↳ HBM4E(고대역폭 메모리) 칩 2029 년 3 분기부터 대량생산,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주요 고객 접근성 강화 목표 ↳ 시설 및 공급망 투자로 약 7,000 개 일자리 창출 전망
대만 뉴스 1 건	• 대만 야당 의회, 정부 군용드론 특별예산 거부하고 자체안 통과 ↳ 정부는 신대만달러 210 억(미화 약 6.6 억달러)의 특별예산으로 2031 년까지 신형 군용드론을 구매하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야당 주도의 의회에서 거부됨 ↳ 대신 의회가 통과시킨 야당안은 매년 신대만달러 40 억 규모의 드론 예산으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 ↳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 대응에 드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의회 다수파의 반발에 직면함
인도 뉴스 3 건	• S&P, 인도 국가신용등급 'BBB/A-2' 안정적 전망 유지 ↳ 어제 S&P 는 정책 기조의 지속성과 높은 인프라 투자가 장기 성장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하며 등급 유지 ↳ 2026 년 실질 GDP 성장률을 6.6%로 전망, 견조한 성장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 ↳ 고유가가 외부 수지 악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위험 지적, 인도의 높은 원유 수입 의존도를 감안하면 이 리스크가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 • 인도 정부채 수익률 상승, RBI 유동성 회수 우려로 채권 수요 부진 ↳ 어제 벤치마크 채권(6.94% 2036 물)의 수익률이 4bp 상승해 6.8901%로 마감, 재정증권 입찰에서도 약한 수요로 182 일물·364 일물 수익률이 3 개월 고점 경신 ↳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 긴축 가능성을 앞두고 인도중앙은행(RBI)이 은행 시스템 초과 유동성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 채권 공급 우려와 겹치며 수요 부진 심화 중 • HDFC Bank 주가 2.5 년 저점 경신, 법률·경영 리스크 누적 ↳ 어제 HDFC Bank(인도 최대 민간 대출은행)는 3 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2.5 년 저점을 경신, 인도 벤치마크 지수도 함께 약세

권역	요약
	↳ 올해 -28% 낙폭으로 2008 년 이후 최악의 연간 낙폭을 추적 중, CEO 재임명 지연과 법률·규제 문제가 경영진 교체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심화 ↳ Macquarie 는 3 년 단위 CEO 갱신이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임시 연장 방식은 투자자 우려를 오히려 심화시킬 것으로 평가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